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⑲ 여말선초 임제종풍의 전개



▶ 한줄 요약

고려 말기에 이르러 원나라를 통하여 백운 경한(白雲景閑), 태고 보우(太古普愚),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등 일군의 선자들에 의하여 재차 임제종의 선법이 수입되면서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선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전승되어 왔다.

한국선 주도 세력으로 전승된 임제 선법

1. 백운 경한

신라 말기 지리산(智異山) 화상 및 고려 초기에 혜조국사(慧照國師) 담진(曇眞)을 통해서 수입된 중국 선종의 임제종은 고려 중기까지는 그다지 큰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눌 이후로 임제종 계통에서 출현한 간화선법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이르러 원나라를 통하여 백운 경한(白雲景閑), 태고 보우(太古普愚),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등 일군의 선자들에 의하여 재차 임제종의 선법이 수입되면서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선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전승되어 왔다.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의 선풍은 이름처럼 성품이 천진스럽고 전혀 거짓이나 조작이 없고, 형상을 빌어서 이름을 팔지 않았으며, 참으로 속세를 여읜 진경(眞境)에서 노니는 것이었다. 백운이라는 명칭은 당시 사회의 상황과 불교계의 상황이 흑운과 풍운으로 즐겨 등장하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흑운과 풍운이란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난세의 기류를 상징하는 반면에 백운은 해와 달이 두둥실 떠올라 맑은 하늘가에 깨끗하게 떠 있는 한 점의 한가로운 구름을 드러내어 부처의 대자비가 구름처럼 자유자재하게 법우를 내려주는 것에 비유되었다.

백운선의 특징은 임제선을 수용하면서도 무심(無心)과 무념(無念)을 강조하여 무심선(無心禪)이라 불렸다. 그는 조주로부터 연원된 무자(無字)와 부모미생전본래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과 만법귀일(萬法歸一)을 강조하면서 화두를 무심(無心)으로 들도록 하였다. 백운은 온 대지가 다 해탈문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마음은 일체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무심의 경지에 통하는 것으로서 대상에 대하여 일체를 파악하고 느끼고 활용하면서도 그로부터 초연할 줄 아는 무심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 무심의 경지에서 대지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지가 모두 법신임을 말한다. 그리고 무심도인의 경지에서 토해내는 설법으로 스스로 깨친 자[自然覺者]임을 설하였다. 그의 무심선은 이미 중생을 부정한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까닭에 절대선(絶待禪)으로 등장하되 중생선(衆生禪)으로 드러나 보이며, 그대로 대긍정의 무사선(無事禪)으로 활작용한다. 그 경지는 모두가 범행(梵行)을 구족하여 중생국토가 그대로 동일법성이고,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이며, 유성(有性)과 무성(無性)이 나란히 불도를 성취한다.

한편 간화선을 수행의 정통으로 수입하여 펼치면서 임제종풍을 중심으로 한 제종파의 섭수를 꿈꾸었는데 그것이 마침내 조계종풍으로 표명되었다. 백운은 부처를 밖의 대상이 아닌 자심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이전의 사상적인 굴레를 벗어나서 자심에서 깨침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 마음마저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심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참학의 시작이고 수행의 연장이었다. 그래서 진정한 설법은 경전에 있는 그대로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터득하는 것으로부터 경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백운은 임제정종을 계승하는 방식을 긍정하면서도 조사선에 대한 새로운 수용방식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화선의 발전에도 근본적인 조사선의 입장으로 회귀시켰다. 근본적인 조사선은 당대에 선종오가의 종파가 형성되기 이전의 순수한 가풍을 말한 것으로, 일체가 그대로 수행이요 깨침이며 진여라는 즉심에 근거한 불심을 말한다. 이것이 때로는 평상심(平常心)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무사선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안(公案)을 제시하는 기관(機關)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백운은 바로 이 점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통합적인 조계선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 태고 보우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는 19세 때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로 입참하여 수행을 하고 마침내 38세 때 깨쳤다. 46세 때 원나라에 들어가 석옥 청공(石屋淸珙, 1272~1352)을 참문하고 인가를 받아 중국의 임제종맥을 이었다. 48세 때 귀국하여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으나 신돈(辛頓)과의 불화가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신돈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과 태고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세력 대결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세력과 정치를 배경으로 한 세력과의 대결이기도 하였다.

임제선을 수용한 태고 보우는 우선 그의 삶에서 조사선의 정신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실천하였다. 그의 선관은 화두를 궁극까지 참구함으로써 깨침을 추구하고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깨침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 말 임제종 선법 전래의 중심 인물 나옹 선사 진영.

백운, 무심 · 무념 강조한 무심선
태고, 중생과 함께하는 화광동진
환암, 태고 등 여러 스승에 참학

하여 다시 명안종사에게 참문하여 구경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리하여 국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깨침을 경험한 이후에 원나라에 건너가 석옥 청공(石屋淸珙, ?~1352)에게 참문하여 인가를 추구하였다. 중국의 임제종맥을 계승하면서도 단순한 임제선법의 계승에 그치지 않고 고려선법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조계선법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또 수행과 깨침과 인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행법에 대해서는 널리 열린 마음을 지니고 온갖 근기를 상대로 갖가지 수행법을 제시하였는데, 염불과 정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제시한 염불의 중심은 아미타불이었다. 이 말은 본래 생사가 없는 무량수(無量壽)이고 깨침의 양태임을 나타낸 말로 사람 모두에게 안락자재한 본성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무량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미타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터득한 자가 불(佛)이고 그것에 대하여 설한 것이 교(敎)이므로 자성의 미타를 깨치는 것은 오직 자심의 청정을 각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로써 내내 아미타불을 염하는 마음이 화두를 참구할 때의 염념불매(念念不昧)이고 상상불매(常常不昧)라는 것이다.

한편 당시까지 내려오던 구산문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호법(護法)을 위한 의지였다. 광명사(廣明寺)에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고 구산문(九山門)을 통합하여 일문(一門)으로 만들려는 것은 모두 일불(一佛)의 마음으로부터 유래한 본래성으로 돌아가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청규와 관련된 전적을 간행하였다. 아울러 국왕과 부모와 스승과 시주자와 도반에 대한 다섯 가지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의식작법으로 의례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순중생을 내세워 어디까지나 중생과 함께 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선풍을 주장하여 스스로 깨침의 기연이 된 만법귀일(萬法歸一)을 비롯한 잡화삼매(雜華三昧)의 화엄선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3) 환암 혼수

고려 말기에 백운과 태고 및 나옹에게 보이는 선수행의 주류는 간화선의 수행법이었다. 그것은 지눌이 송대의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간화선 수행법을 수입한 이래로 고려 말기에 재차 원대에서 수입한 간화선 수행법의 융합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환암 혼수(幻菴混修, 1320~1392)에 의하여 기타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의 간화선 수행법도 아울러 전승되었다. 혼수는 고려 말기 태고 보우 및 나옹 혜근의 사법제자로서 휘는 혼수(混修)이고 자는 무작(無作)이며 호는 환암(幻菴)이다. 태고 보우의 〈행장〉 의하면 혼수는 태고 보우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환암 혼수의 〈비문〉 및 나옹의 〈행장〉과 〈어록〉 그리고 〈나옹석종비음기(懶翁石鍾碑陰記)〉 등에 의하면 나옹 혜근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이처럼 혼수가 여러 스승으로 참학한 경우를 종합해보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12세 전후에 계송(繼松) 스님을 따라 내전과 외전을 널리 공부하였다. 둘째는 강화도 선원사(禪源寺)의 식영감(息影鑑)에게 참문하여 〈능엄경〉의 25가지 방편수행을 수학하였다. 셋째는 고운암(孤雲庵)의 나옹 혜근을 찾아가 문답을 나누고 입실하였다. 넷째는 태고 보우의 문도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보면 첫째의 계송은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에게 사사한 인물이다. 둘째의 식영감은 각엄복구(覺儼復丘)의 문도이면서 식영감이 주석했던 신원사는 몽산 덕이의 제자인 철산 소경(鐵山紹瓊)이 주석한 곳이기도 하므로 역시 몽산의 선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영감이 직접적으로 철산 소경의 법을 계승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셋째의 오대산 신성암(神聖庵)에 주석할 때에 가까운 고운암(孤雲庵)에 주석하고 있던 나옹 혜근(懶翁慧勤)과 문답을 나누어 나옹 혜근으로부터 입실을 허락받았다. 이때 나옹은 그 징표로 금란가사(金襴袈裟)와 상아로 만든 불자(拂子)와 주장자(拄杖子)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나옹이 주관한 공부선(功夫選)에 응시하여 혼수만 답변하여 인정을 받았다. 넷째의 경우는 태고 보우의 행장으로부터 18세기에 간행된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源流)〉에 이르도록 보편화된 설이다. 특히 편양 언기의 〈종봉영당기(種峯影堂記)〉와 이식(李植)이 〈청허당집(淸虛堂集)〉에 붙인 '서문'과 이정구(李廷龜)가 쓴 청허의 '비문' 등 17세기에 출현한 법통설의 계보에서는 압도적이다.

이 가운데 넷째의 경우에 대해서는 태고 보우의 법계를 계승했다는 것, 나옹 혜근의 문도라는 것, 보조 지눌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 나옹과 태고의 법계를 모두 계승했다는 것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는 그만한 논지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각각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법계의 확정은 각각의 종파나 문중이 그에 따라서 오늘날 정통으로 혹은 방계로 취급받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 관련하여 장구한 선의 역사에서 선이 단순히 수행의 일종이거나 사상의 편린이라는 단편적인 측면을 넘어서 선종이라는 집단으로 출현한 이후에는 어떤 점이 가장 중시되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선이 선수행과 선법 내지 선사상의 범주에 머물고 있었던 인도불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깨침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선이 한자문화권에 전승되면서 선종으로 정립되면서부터 깨침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전법이 더욱더 중요시되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깨침을 터득했는가보다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았느냐가 중시되었다. 곧 깨침은 어디까지나 스승의 지도를 받아 자신이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내증(自內證)의 문제이지만 전법과 인가는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로부터 인가받았는가 하는 점은 곧 대의와 명분을 중시했던 사회에서는 자체의 집단이 생존과 번영을 구가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제였다. 이로써 선종에서는 깨침은 전법의 필요조건으로서 중시되었다.

나아가서 부처님의 본의가 지혜와 자비에 근거한 중생제도라는 최상승(最上乘)과 대승(大乘)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불조혜명의 계승을 내세우는 선종에서는 전법으로만 그 본래적인 의의를 다할 수는 없었다. 이로써 전법의 중시는 당시의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했느냐 하는 대중의 접화라는 조건을 아울러 중시하게 되었다. 깨침과 전법은 각각 대중을 접화하고 집단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접화라는 교화의 직접적인 목적일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에서 집단을 이끌어 나아가고 제자를 배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현실적이면서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전법의 궁극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깨쳤느냐 그리고 누구에게서 인가받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떤 교화를 했는가에 따라서 당시의 대중들과 국가로부터의 호응을 받는 척도가 되었다. 고려 말기에 태고 보우와 백운 경한 등에게서 보이는 역할은 나아가서 그 법계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현장설치가격포함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설치가격포함 ₩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현장설치가격포함 ₩ 80만원